재난 현장으로 달려간 불교…이웃 곁 지키다

재난시대와 불교

국내 재난 구호 활동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복구 지원
주민 위로와 사찰·지역 회복 도와
구호물품·급식·생필품 지원까지
일회성 지원 넘어 현장 중심 자비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는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해 3월 26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 고운사를 방문한 모습.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이 지난해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오른쪽)은 지난해 7월 충청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붕괴된 선수암 차고지 현장을 찾았다.



조계종은 지난해 9월 8일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 생수 70톤을 긴급 지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12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을 찾았다.

재난은 예고 없이 일상을 무너뜨린다. 산불은 삶의 터전과 문화유산을 위협하고 집중호우는 주택과 농경지를 휩쓸며 가뭄은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마저 앗아간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너진 집과 훼손된 산하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은 이웃들의 고통이 남는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는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산불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마을을 찾아 상황을 살피고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생필품과 식수를 지원했다. 대형 참사 현장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추모객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피해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살피며 구호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북 산불과 경남 산청·충청 지역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불교계의 현장 대응도 이어졌다. 사찰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부터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까지 활동 범위도 다양했다. 재난의 양상과 피해 규모는 달랐지만, 고통받는 이웃의 곁을 지키며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방향은 같았다.

산불 속 문화유산 지키고 이재민 도와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림과 주거지를 넘어 지역 불교문화유산에도 위협이 됐다. 불길이 사찰로 번질 위험이 커지자 의성 운람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은 아미타삼존불과 탄생불, 신중탱화 등 주요 불교유산을 조문국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했다. 불길이 사찰을 덮치기 전에 문화유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재난 현장에서 불교계의 대응은 문화유산 보호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구호 활동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3월 26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임원 스님들과 함께 산불 피해가 컸던 고운사를 방문했다. 스님들은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산불 진화에 힘쓰는 기관과 사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종단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도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했다. 산청 단성중학교를 비롯해 단성초등학교와 보건소, 휴양림 등 6개 대피소에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재난 직후 대피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활동이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와 자비를 전했다. 전국비구니회 임원 스님들은 피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성금 4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전국 5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종단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을 전한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은 재난 대응에서 불교계의 역할을 보여준다. 사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피해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종단과 사찰, 복지기관이 각자의 역량을 모아 구호에 나섰다.

수해 현장 살피고 복구 지원 약속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도로 유실, 건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불교계는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살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7월 24일 경남 산청에 이어 충남 예산 수덕사를 방문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의 상황을 확인하고 종단 차원의 복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수덕사에서는 산내 암자인 정혜사의 진입로가 산사태와 도로 유실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선수암에서는 차고지 붕괴로 차량이 파손됐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뒤편 옹벽도 무너졌다. 근역성보박물관 인근 사방보에는 토사가 유입됐다. 진우 스님은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조계종 긴급구호단(단장 묘장 스님)도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 7월 21일 경남 산청에 파견된 구호단은 율곡사와 인근 마을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화장지와 비누, 치약, 칫솔, 티셔츠 등을 담은 긴급구호 키트 100개를 마련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생필품 지원은 재난 직후 피해 주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방문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후속 지원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찰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재난 이후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가뭄 재난에 생수 3만5000병 지원

불교계의 재난 지원은 산불과 수해에만 머물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을 겪은 강릉에도 긴급 지원이 이뤄졌다.

조계종은 9월 8일 강릉시청을 통해 감로수 2리터 생수 3만5000병 규모인 생수 70톤을 지원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

가뭄은 산불이나 홍수처럼 피해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을 장기간 위협한다. 불교계의 생수 지원은 재난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 현장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활동은 재난 구호의 기본이지만 그 의미는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전하는 과정 자체가 자비 실천의 한 방식이기도 했다.

참사 현장서 추모·유가족 지원

불교계의 현장 대응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서도 이어졌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자 스님들은 무안국제공항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참사 다음 날인 12월 30일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해 기도를 올린 뒤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2025년 1월 2일 무안국제공항 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종단을 넘어 애도의 뜻을 모았다.

추모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도 펼쳐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참사 발생 직후 대응팀을 구성하고 12월 30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을 위해 공항 게이트 앞에 '자비의 간식' 부스를 설치했다. 부스에서는 마스크와 생수, 핫팩, 초코파이, 초코바 등을 제공했고, 다음해 1월 6일까지 운영됐다.

재단 산하 광주전남지역 복지관 관계자들도 지원에 동참해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을 도왔다. 이날 전국교구본사에서 모인 스님들도 분향소를 참배하고 부스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재난과 참사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은 물품과 비용만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이들이 겪는 슬픔과 충격을 함께 나누고, 긴 시간 현장을 지키는 유가족과 추모객의 곁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불교계의 추모 기도와 현장 지원은 물질적 구호와 함께 정서적 돌봄이 재난 대응의 한 축임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과제로

국내 재난 현장에서 이어진 불교계의 활동 공통점은 재난이 발생한 현장으로 직접 향했다는 데 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살핀 뒤 구호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재난 대응의 한 주체로 역할을 해왔다. 종단과 사찰,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은 점도 주목된다.

활동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재난 구호가 성금과 물품 전달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긴급구호단 파견과 현장 급식, 피해 상황 점검, 유가족과 추모객을 위한 지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물질적 구호와 함께 추모와 위로를 통해 고통을 나누는 활동 역시 불교계 재난 대응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양상이 달라지는 가운데 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의 현장 활동은 자비가 개인의 수행과 신행을 넘어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건네고 회복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일. 고통받는 중생의 곁을 지키려는 불교의 오랜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방장 향우 명신
수좌 현덕
주지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